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9년동안 뉴헤이븐 연합감리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하다가 이곳,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로 새롭게 파송받게 된 최영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때에 새로운 파송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 불과 30분 남짓한 거리에 파송을 받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이제 이곳 웨어필드 그레이스에서 지금까지 조건삼 목사님께서 13년 동안 정성스레 사역하신 것을 이어받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세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에 사역했던 뉴헤이븐 연합감리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참 많이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목회 속에서 지금까지 강조해온 것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땅 위에 사는 것과 일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앞으로 예배와 각종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라지게 되시길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모(FOMO) 증후군'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포모란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예요. 두려움에 관련된 신조어인데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나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어디에선가 놀랍고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만 그걸 모르고 나만 그 좋은걸 놓치고 있을까봐 초조해 하고 두려워 하는 거예요. 원래 포모의 시작은, 마케팅 전략가 댄 허먼(Dan Herman)이라는 사람이요, 제품의 공급량을 일부러 줄여서 소비자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마케팅으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오늘날의 '매진 임박' '한정판!'의 전략인거죠. "남들 다 사는데 나만 못 사면 어떡하지?"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

들어요... 이렇게 마케팅 기법이었던 포모가 질병으로 인식된 것은 2004년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포모를 사회병리 현상의 하나로 주목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사는 성인의 과반수가 포모 증세로 괴로워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모증후군이 부각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 아십니까? SNS의 확산이네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SNS를 확인하십니까? 젊은 분들일수록 하루에도 SNS를 확인하는 횟수가 일반적으로 더 많네요. 더 빨리 더 새로운 정보를 강박적으로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전화기를 들여다봐요. 저도 그래요... 오늘은 누가 어떤 정보를 공유했나, 지인 아무개는 요즘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있나, 잘 나가는 이들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매체를 즐겨보는지 궁금해해요. 남들이 나보다 더 재미있는 걸 하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내가 모르는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앞서 나가는 사업 아이템을 가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양 사업을 잘못 선택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사람들을 잘못 사귀었을까? 더 싸고 좋은 물건이 있는데 나만 바가지 쓰고 잘못 산 게 아닐까? 좋은 쿠폰이 있는데, 나만 모르고 제값 다 주고 사는 건 아닐까? 남들은 더 경제적이고 멋진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공감들 되시죠? SNS상에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멋진 경험과 사진을 수시로 보면서 나만 지루하고 나만 보잘것없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해서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우리 삶을 실제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거예요. 사진과 글을 계속 올리며 나의 현실보다는 최고의 모습만 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또 시달려요. 만족함이 있을까요? 만족함이 없네요... 일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동시에 후회가 시작되네요... 나는 A를 샀는데, 친구가 B를 샀다면 얼마 못 가서 B가 더 좋아 보여요! 그렇다

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SNS 를 안하면 해결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 보고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충분히 잘난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로마시민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좋은 학벌... 자기를 PR하고 소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서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예요. 바울이 각 교회를 위하여 보낸 편지는 신약성경이 되었어요. 그 양이 무려 신약성서의 1/3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세상 자랑을 다 버렸다 했어요.

왜? 무엇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함" -머물게 [에피스케이노오]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안주하다, [에피] 곁에, [스케노오] 천막에 살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고백했어요!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끝까지 겸손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서는 은혜를 많이 받은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교만하지/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고 했는데, 딱 삼세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셋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간절하게 많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없애 달라는' 그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가시를 보는 눈을 다르게 해 주셨지요. 전에는 그 가시가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만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가시가 주는 유익함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시가 주는 유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해 바울에게 주시고자 하

시는 유익함인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체험,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보았거든요. 심지어 삼층천까지 구경한 바울의 체험은 실로 엄청난 신비였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세계를 본 바울은 교만하기 쉬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에서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자라오고,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하는 동안 참으로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 봤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때마다 육체의 아픔으로 인해 그는 겸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시는 마음을 낮추게 합니다. 가시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면에서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진 바울의 눈에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스스로의 만족과 남들에게 부러움이 되는 삶을 추구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바울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에만 관심두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해서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겠다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러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만큼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어있는 만큼입니다. 약함은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게 합니다. 비어있게 합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것만으로는 안되요! 그 비운 곳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야 해요. 성경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야해요! 여러분은 요즘 기도하십니까?? 앞에서 나뉘던 포모증후군은

비교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답니다... 때론 열등감의 이름으로, 때론 교만함의 모습으로, 때론 질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뚤어진 모습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스팟라이트가 가는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하늘을 날라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른 존재로 만드시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포모증후군으로 가지 마세요! 대신, 바울처럼 그 부족함 혹은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의 은혜 가까이 머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화: Made In 하나님 <국민일보/겨자씨>**

어떤 분이 세계 미술 대전을 관람했는데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볼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작품도 끼여 있는 거예요. '저런 작품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출품될 수 있었을까. 손으로 그렸나 발로 그렸나. 나도 저만큼은 그릴 수 있겠다'며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지나갔어요. 그러다 문득, 작가 이름이라도 봐야지 하면서 가까이 다가서니 '피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변덕스러웠습니다. 작가 이름을 보고 그림을 다시 보니, 갑자기 진짜 최고의 걸작품으로 보였습니다. 최고의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평가했다라면 무식이 탄로 날 뻔했는데요. 그 후 사람을 볼 때마다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키가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능력이 있다 부족하다'면서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작가 이름을 보니 '하나님'이시다! 자칫 잘못하면 '작가 모독죄'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평가하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인 나와 당신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미 우리 삶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전하는 삶을 보면 한결 같이 자신의 약함, 자신의 죄임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함을 몸소 체험했고 변화된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 안에 끝까지 머무는 것을 기뻐하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웨어필드 그레이스도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한 것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합시다!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몸된 교회에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